

건축과 조경(VII)

역사속의 건축과 조경



강릉선교장의 활래정

REPORT

Architecture and Landscape
by Oh, Sang-Pyung

5. 역사는 변화속에 흘러가고 문화는 민족과 함께 이어지는것.

이제까지 서양의 고대중세, 문예부흥 산업혁명이후 근세와 동양 문화의 원류(原流)가 황하로 부터 일본의 경도를 거치는 동안 세계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건축과 조경 문화의 족적을 더듬어 보았으며 이것과 맥을 같이 이어온 우리의 역사와 건축 조경문화를 살펴 보았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문화와 예술은 역사적 과정에서 절대로 좌절될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새로운 상황하에서도 그 맥락은 면면히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 시대의 선구자들에 의하여 다시 재 창조되어 새로운 풍조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이다.

최근세사에서 우리의 역사는 36년의 식민지 시대와 해방과 6.25로 이어지는 반세기 동안 고난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면면히 이어져 오던 우리의 조경문화의 맥이 단절된것 같은 현상을 보아왔고 60년대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경제가 향상되고 국토의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부터 개발과 함께 밀어닥치는 국토의 훼손 즉 황폐화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환경의 황폐화는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여 종국에는 인간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사태까지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한강은 오염되어 죽어갔으며 일부 공업지역에서는 주민의 상당수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해병인 호흡기질환, 피부질환등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주변지역 농작물이 말라가며 연안어업이 망하고 갯벌에는 조개가 자취를 감추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주변에서는 환경의 보전(保全: Conservation) 보존(保存: Preservation) 자연의 보호(Protection)라는 생소한 용어들이 점점 나타났으며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발 시대에 있어서 생존환경의 필연적 보존이라는 일환으로 임기응변식 누더기 땀질식의 60년대말 70년대초의 조경 사업개시는 우선 벌거벗고 우뚝선 치부부터 가리고 보자는 식으로서 전통을 찾을 겨를도 없었고 조경문화를 논할 시기가 못되었다. 서구식도 일본식도 중국식도 더군다나 우리 고유한 맥락은 찾을수조차 없었던 한마디로 오구잡탕같은 별의별 형태가 연출되었다. 심지어 국가의 외교적행사(모종의 행사)시에는 채석장에 노출된 발파된 바위에는 물감으로 색칠을 했으며 요인이 지나가는 길목에는 온갖 수목을 임시로 나무상자에 심어 일렬로 늘어 놓아 보는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하였고 뿌리없는 상록수를 잘라다 마치 살아있는 수목처럼 위장을 하기도 하였던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수없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조경문화의 맥락은 이어져 내려와 역사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이 분야에

오상평 /
정화엔지니어링대표 국토개발기술사(조경)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 하였고 이것이 자라 70년대 중반에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학문적인 영역으로 정착 되면서 차츰차츰 원기를 회복하여 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고 새것을 창조해 보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뿌리에 대한 강한 동경심이 되살아나고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남의 껍질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서 우리 고유한 모델을 갈구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그만큼 주체성이 살아 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흔적이 도시에 소나무 식재 등으로 우리 한국적인 이미지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소나무 이것이야말로 한국민족을 가장 한국인답게 느낄수 있게하는 향토 수종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이탈리아는 노단식, 프랑스는 기하학적 구성식, 영국은 목가적인 자연풍경식, 미국은 실용주의적 대중공원, 일본은 상징주의적인 축경식, 중국은 도가 사상적인 규모가 큰 상징주의식등등 뚜렷한 하나의 그 민족 특유의 양식이 존재하였으며 그 형태가 뚜렷하였다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비하여 우리의 음양오행설과 풍수지리설에 의해 태어난 후원양식이나 방지원도(方池圓島)의 양식 자체는 외국 사례와 같이 일정하게 주어진 토지를 인간의 취향에 알맞도록 개량하여 즐기는 토지의 적극적 이용 형태가 아니고 우리는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양택(陽宅)하는 소위 명당자리를 찾아 도성(都城)이 형성되고 명당자리에 집을지어 삶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토지를 골라 이것을 이용함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명당자리에 안채와 사랑 동별당 행랑채를 권세와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적당히 배치하고 각채와 채(각건물) 사이에는 각채가 전용으로 하는 마당이 있고 이것을 적당히 구획하는 알맞는 높이의 담장과 대문간이 위치하면 되는것 이었다. 즉 사대부 집이라면 6마당 12대문 99간이 표준이었고 관아나 그밖의 정자등

모두가 자연에 순응하여 입지한 것들이었으며 이에따라 조정적인 수법역시 명당자리에 집터를 잡음으로서 대부분 택지내의 수식은 별로 없었고 이로 인하여 후원을 꾸미는 후원 양식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곳이 곧 절경이고 문을 열고 대청마루에 서면 바라보이는 좌청룡 우백호와 남주작에 해당하는 내류수(內流水)인 개천, 또한 안산조산등 모든것이 정원이 아닌것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집안에 특별한 조정시설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기껏 담장에 곁들여 과일나무(대추, 매화, 살구)등과 느티나무 등으로 정심수를 심어 외부와의 연결관계등만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처럼 토지의 적극적 이용방법에 익숙치 못했던 우리 민족에게 갑작스런 현대화의 개발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으며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개발 세대도 30년에 가까운 청년기에 접어 들었으며 경제력과 모든 국력이 서울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커졌으며 국토개발도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만큼 조정문화 역시 우리의 독특한 한국인 냄새를 물씬 풍기는 양식의 창조가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된다.

30년전에 비하여 이제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고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고향을 새기고 있으며 고향을 그리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고향의 산천은 변하여 옛날의 고향은 없어 졌으며 오직 마음의 고향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조경을 통하여 옛날의 고향을 되돌려 찾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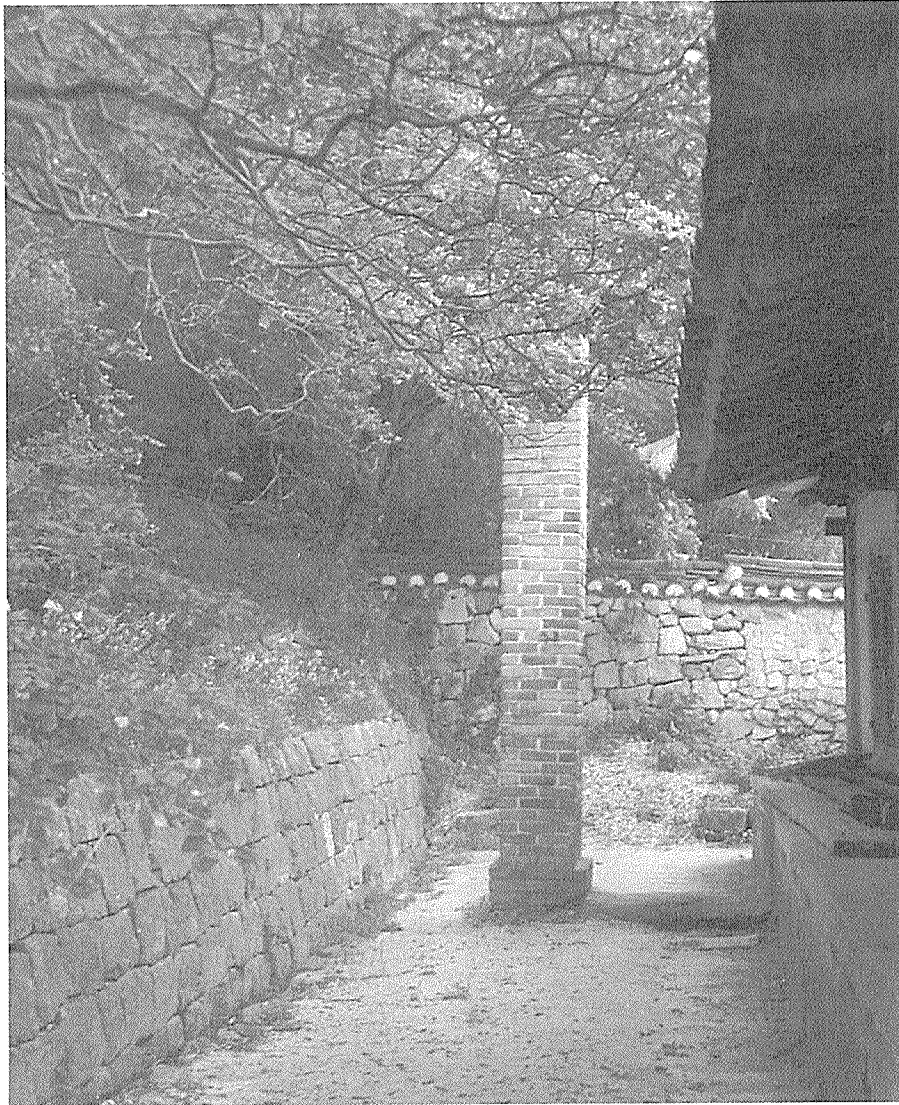
수양버들 늘어진 물레방앗간이 고향이고, 석양지는 들녘, 앵두나무 우물가의 물동이 이고가는 처녀의 모습,



향원정 정자와 나무다리



99칸 사대부가 전경



선교장 후원

고갯마루의 노송나무 오솔길,
 동구밖 정자나무, 아지랑이 아른거리는
 봄 야산의 진달래, 개나리,
 담장가의 살구나무, 장독대의
 대추나무와 석류나무,
 이 모든것들이 우리들의 고향이며 매우
 자연스럽게 포근한 우리들 어머니의
 품안 이었던 것들이며 이것들이 곧
 우리의 맥을 이어 나가게 하는 조경의
 소재일 것이다.
 요즈음 많이 늘어나고 있는 대도시의
 도심속에 크고 작은 공원들을 보면
 흐트러지기 짝이 없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공원은 현대 도시의
 허파라고 하였다.
 허파는 우리 몸에서 생명을 유지
 시키기 위한 숨을 쉬는 가장 중요한
 1종의 기관 즉, 숨통이다.
 숨통이 막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러한 우리의 숨통인 공원에 촌스럽고
 어색하게 머리를 뺨뺨 깎은 복귀군

병사같이 고식적인 스타일이 아닌
 마음의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어머니
 품속 같은 조경 양식을 창출해야 할
 것이며 하늘을 찌르는듯한 고층빌딩으로
 뒤덮이는 도심 재개발 지역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콘크리트의 숲,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
 이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며 마음의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조경을 통하여 고향의 숨결을
 이곳에 불어 넣어야만 할 것이다.
 선조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사적지에서
 연간 일백만명이 넘게 찾아와 이 나라
 풍물을 보고가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지에서, ‘오! 이것이 정말
 원더풀코리아로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멋을,
 웅장한 올림픽의 스타디움에서 우리는
 조경문화를 통하여 세계인에게 우리의
 긍지를 펼쳐야만 할 것이다.

6. 역사속의 건축과 조경, 이단원을 마치며.

불학무식한 불초가 7회에 걸쳐
 역사속의 건축과 조경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집필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재료를 들추고 그간 몇차례에 걸친
 해외 여행과 원로들의 조언을 들어
 가면서 판에는 애를 썼으나 원래가
 천학비재라 충분한 도움이 될만한 글이
 되지 못하고 결국 지루하고 진부한
 이야기만 되풀이 하므로서 무모하리
 만큼 당돌하게 끝나와 이 단원을
 마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 독자
 제현에게 폐를 끼친것 같아 송구스럽기
 이를데 없을 뿐이며 역사속의 건축과
 조경이라는 표제가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역사속에 수없이
 명멸했던 명건축과 그에 따른
 조경이라는 것을 속속들이 알아 본다는
 것은 도대체 불가능 하였고 다만
 역사의 흐름과 문화의 변천이라는
 대흐름 속에서 그것이 상호 어떻게
 관계되어 이어져 왔던가 하는 개념을
 짚어 봄으로서 건축가로서의 창작
 활동에 밀접한 인접 분야인 조경을
 다소나마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다음 단원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로서
 업무에 직접적인 활용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필연적으로 앞으로는
 사회가 선진화 되어 집에 따라 사회적
 가치관과 요구 형태가 필요 가치적
 형태 (Cost Value Society)에서 선택적
 가치 체계 (Sentimental Value Society)
 로 전환 되어 진다는 엄연한 현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보다 나은 창작
 활동은 각론적인 기교 보다는 원론적인
 가치관의 형성과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 단원의 원론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전력을 다하여 많은
 자료를 이용하고 충분한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여 전개해 볼 생각이나
 그것이 생각처럼 잘 진행될지 두려움이
 앞설 뿐이다.

지난 7회에 걸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용기를 내어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해 보고자 할 따름이다.